

북핵실험으로 방사능이 누출됐다면... ?

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경악하며 대북 제재와 재발 방지대책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.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상황이다. 이러한 때에 우리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. 북핵 실험을 계기로 화생방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본다. 본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인용한 것이다.

경계 경보시 ■ ■ ■

▶ 주민

- 방독면, 보호장비, 물자 준비 점검
- 방독면은 정화통을 미리 연결시키고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.
-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우의, 비닐, 피복 등을 입거나 준비한다.
- 방독면이 없을시 수건, 마스크, 비닐 등을 준비한다.
- 우물, 장독, 노출된 음식료품은 비닐로 덮거나 포장한다.
- 야외에서는 방독면을 휴대하고 보호의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방지한다.
- 실내나 대피소에서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밀폐할 준비를 한다.
- 사전에 바람부는 방향을 인지한다.

▶ 민방위대

- 각종 보호장비, 치료약품을 정비·점검한다.

- 대원별 임무와 행동요령을 숙지한다.
- 화생방전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계도한다.
- 기술지원대, 화생방요원은 출동태세를 유지한다.

화생방 경보시 ■ ■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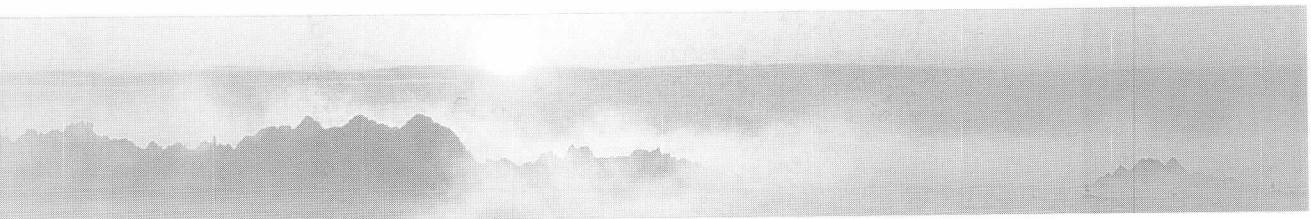
- 화학가스 피격시 -

▶ 주민

- 화생방 공격사실 발견자는 방독면,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히 신고한 후 이웃에게 알린다.
- 보호장비가 없을 때는 수건, 마스크, 휴지로 호흡기를 막고, 비닐 옷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한다.
-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 후 출입문을 밀폐한다.
- 야외에서는 옷을 완전히 입어 피부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.
- 실내에서는 방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공기의 유통을 막는다.
- 화생방 경보해제시까지 가급적 실내에서 대기한다.

▶ 민방위대

- 신속히 경보를 전파하고, 상황에 따른 사태수습태세를 유지한다.
- 유도요원은 방독면,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민대피를 유도한다.



- 오염지역 범위를 판단하고, 오염유무를 식별한다.
- 제독요원은 오염시설, 장비, 지역제독을 실시한다.
-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, 주민접근을 통제한다.

- 세균무기 피격시 -

▶ 주민

- 오염사실 발견자는 즉시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하고, 신속히 신고함과 동시에 이웃에 전파한다.
- 보호 장비가 없을시 수건, 휴지,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, 옷이나 비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.

▶ 민방위대

- 신속한 정보전파와 주민행동 요령을 계도한다.
- 소속 및 제독을 실시한다.
- 인근 및 유관기관과 상호지원을 한다.

- 핵무기 피격시 -

▶ 주민

- 핵폭발 현장을 감지하였을 때는 쳐다보지 말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, 신속히 은폐한다.
- 폭풍 통과 시까지 엎드려 대피하였다가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한다.
- 피폭지역내의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고,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- 열복사선, 폭풍 및 충격으로 인한 화재는 방사선 낙진이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진화작업을 한다.
- 낙진형성 지역 내에서는 핵폭발 후 2일 정도

까지 대피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한다.

- 외부 출입 시는 방독면,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돌아올 때 대피소 입구에서 벗는다.
- 외출 후에는 입었던 옷을 벗고, 목욕을 한 후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.

▶ 민방위대

- 폭풍 및 충격파가 지난 후 방독면, 보호장비를 착용하고, 주민 대피를 유도한다.
- 파괴된 건물 및 시설 중 필수시설부터 응급복구한다.
- 화재 발생 시는 긴급히 진압한다.
-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, 주민 및 차량을 통제한다.
- 사상자 색출 및 환자 후송, 응급치료를 실시한다.
- 통제요원을 도와 오염정도 및 범위를 판단하고, 제독을 실시한다.
- 사상자 확인 및 가매장을 한다.

- 핵 공격 시 행동요령 -

▶ 핵폭발 전

- 핵폭발 경계경보 발령시 :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주위 지형지물(언덕, 도랑)을 이용하여 대피한다. 일반 가정에서는 지하실로 대피한다.
- 평소 대피시설 위치 및 대피경로를 숙지한다.
- 장기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준비한다.

▶ 핵폭발 시

- 2~3보 이상 대피를 금지(섬광 및 폭음으로 인지) 한다.
-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, 코, 귀를 손으로 막는다.

- 핵폭풍이 지나고 비산물 낙하 시까지 없드린다.
- 낙진 낙하시 방독면 우의 등을 착용한다.

▶ 핵폭발 후

- 낙진 종료시까지 실내로 대피한다.
- 인체, 지역, 시설물 제독을 실시한다.
- 오염된 음료수, 음식물 취식은 금지한다.
- 옥외 노출시 방독면, 보호의 등을 착용한다.
- 방사선 오염지역 숙지 및 오염지역 출입을 통제한다.

▶ 방사능 낙진 강하 시 행동요령

-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을 계속하며, 우물이나 장독을 보호한다.
- 외출시 우산, 비옷, 보호의를 착용한다.
- 옥외에서 음식물 취식은 금지한다.
- 집이나 사무실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한다.

-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를 보호한다.

- 방사능 오염 제독 -

방사능 오염 제독은 방사성 물질이 지역이나 사람, 장비를 오염시켰을 때, 깨끗하게 제거하는 활동이다.

▶ 인체제독

- 비눗물이나 따뜻한 물로 2분 정도 씻는다. 가급적 지역 내 인체 제독시설을 활용하고, 오염검사로 확인한다.
- 눈 오염 시는 물로 씻되 문질러서는 안된다.
- 코는 숨뭉치로 깊이 닦아낸다.

▶ 지역 및 장비제독

- 포장지역, 건물표면은 물이나 비눗물, 세제로 제거한다.
- 토양, 농장, 목초지는 표면을 긁어내거나 깎아내어 매몰시킨다.

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『지하철건설 재해예방 협의회』 개최

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(지청장 朴鍾善)은 '06. 9. 27(수) 오후 3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908공구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지하철건설(김포공항~여의도간 18.9 km) 10개 공구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06년 3/4분기 『지하철건설 재해예방 협의회』를 개최 하였다.

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지난 2/4분기 발생한 사망재해 2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3/4분기 현장별 건설공정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.

서울남부지청은 지하철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재해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분기마다 건설공정

에 적합한 『재해예방 프로그램』을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으로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, 지하철 건설 현장소장 중심의 『지하철 건설 재해예방 협의회』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. 또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철건설공사 산재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.

서울남부지청은 현재 공사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공사(김포공항~강남역, 25.5km) 14개 건설공구 중 지청 관내에 10개 건설공구가 있는 점을 감안 특히 지하철 산재예방에 집중지도하고 있으며, 건설은 '01년 12월 착공하여 '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68%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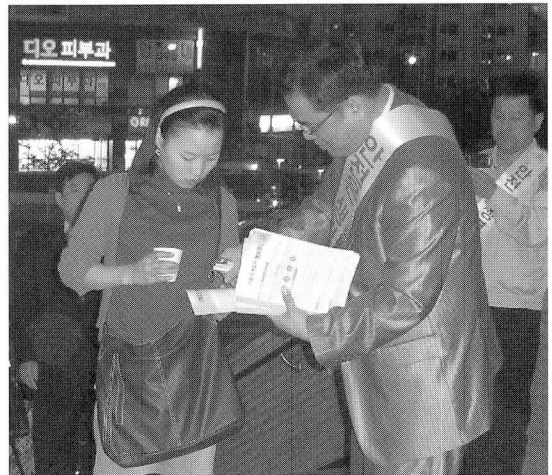
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『산재예방 거리 캠페인』실시

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(지청장 박종선)은 '06. 10. 18(수) 오후 6시 30분 서울지하철2호선 당산역 부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.

캠페인은 금년 들어 서울남부지청 관내(영등포구, 강서 및 양천구)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소홀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해이 등으로 중대재해가 17건이나 발생하여 작년 같은 때 보다 70%정도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.

이날 행사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에 어깨띠를 두르고 퇴근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작업관련 뇌·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홍보책자를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.

한편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7월 12일에도 산재취약시기인 장마철과,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쉬운 하절기 산재예방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, 앞으로도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,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·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



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, 매월 4일에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「안전점검의 날」행사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등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,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. 